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정철영, 편집인 : 이인복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태일·김현석·손영환·신찬석·안동환·이은진·이찬·조철훈)

2015학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개최

2015학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박은우 교수 학술상: 이동근 교수 교육상: 이변우 교수



앞줄 왼쪽부터 이동근 학술상 수상자, 한인규 기금출연자, 상록대상 수상자 부부(길근미, 박은우), 성낙인 총장, 교육상 수상자 부부(이변우, 박혜선), 정철영 학장, 뒷줄 왼쪽부터 최윤재 선정위원장, 이우일 연구부총장, 김종서 교육부총장, 김병문 교무처장, 김정환 학생처장.

11월 3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제23회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과 제15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제13회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상 시상식을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정철영 학장, 이학래 전 학장, 한인규 기금출연자, 최윤재 선정위원장, 수상자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 규정변경에 따라 명칭이 과거의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에서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올해의 상록대상 수상자는 박은우 농생명공학부 교수, 학술상 수상자는 이동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교육상 수상자는 이변우 식물생산과학부 교수이다. 박은우 교수는 NICEM의 발전을 이끌고 평창캠퍼스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동근 교수는 조경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3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등 교육과 연구에 두루 힘썼으며, 이변우 교수는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격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4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기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날 시상식은 이석하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정철영 농생명대 학장(교육연구재단 이사장)의 인사, 최윤재 수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및 수상자 약력 보고, 시상, 성낙인 총장 및 한인규 기금출연자의 축사, 수상자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 인사에서 수상자들은 서울대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에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음을 밝혔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학교 발전에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23회 화농상 시상식



화농연학재단(이사장 정철영 학장)은 12월 15일 교수회관에서 제23회 화농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화농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제23회 화농상 수상자로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의 이옥란 교수를 선정하였다. 이옥란 교수는 '고려인삼에서 트리테르펜(triterpene)류 생합성에 관여하는 PgHMGR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분석'이라는 논문에서 2개 이상의 다중유전자에 의해 조절 발현되는 HMGR효소 유전자들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인삼을 재료로 밝혀내었고, 이 논문이 농업과학 기초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평가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화농연학재단은 우리 대학 조대학장 화농 조백현 선생이 농업과학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후학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고자 설립한 재단으로, 매년 기초농업과학분야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화농연학재단 임원진과 수상자 가족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철영 이사장의 인사말과 권용웅 이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시상식 및 수상자 인사, 축하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한인규 명예교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우리 대학 한인규 명예교수가 10월 13일 '제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지난 1991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한인규 명예교수는 평생 식품·동물생명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축산학과 사료학을 각고의 노력 끝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세계축산학회 및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축산학과 사료학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한인규 명예교수는 정년퇴임 후에 사재 8억원을 털어 목윤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의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내의 학술단체 지원사업 등을 실천하는 등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참된 교육자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5학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



2015학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12월 11일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교수학사협의회는 우리 대학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정철영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각 행정실의 업무보고로 시작되었다. 그 후 현안 논의 시간에는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대학관리공간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토의하였다. 이어진 신입교수 연구발표 시간에는 윤희연 교수, 김기석 교수, 기창석 교수가 발표하였고, 미술대학 김병중 교수가 '감성생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 대학 교수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학교발전 및 현안사항에 대

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5년도 농생대 주요뉴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남부학술리 방문— (2. 6.)



이인원 교수,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 (5. 1.)



SNU 70th
세계를 품고 미래로
Embrace the world.
Pioneer the future.

미국 오리곤 임업대학교
MOU 체결 (7. 20.)



제24대 정철영 학장 취임 (7. 27.)



평창캠퍼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준공·상록학생생활관 개관식 (8. 27.)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총장 방문 (9. 21.)



실험목장, 토종닭 종복원센터 자원기반
지정 현판식 (10. 7.)



CALS 홍보 UCC 공모전 (12. 3.)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12. 3.)



농생대 최초 UCC 공모전, 그 의미를 찾다

2015년 9월 30일부터 12월 4일에 걸쳐 'CALS UCC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역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UCC를 만들기 위해 총 10개 팀이 이 공모전에 참가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UCC 공모전이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각각 한 팀, 장려상에는 두 팀이 선정되었다. UCC 공모전을 개최한 가장 중요한 취지는 단순히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농생대의 비전을 살펴보고 농생대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만든 UCC 작품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행정실 홈페이지(<http://calslab.snu.ac.kr/calsstudent/main>, 갤러리 - 동영상 갤러리)에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학교 행사 등 홍보업무 전반에 활용될 계획이다.

UCC 공모전, 배경과 추진과정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고 주관한 곳은 우리 대학 학생행정실이다. 학생행정실은 산하에 입학진로정보실을 두고 있으며, 장학복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상담실 운영 등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우리 대학 홍보 및 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행정실로부터 UCC 공모전 준비부터 최종 심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행정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자체 UCC 공모전으로는 농생대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관하는 입장에서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기보다, 재학생들이 농생대인으로서 비전과 자긍심을 갖고 농업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어로 본 공모전이 채택되어 시작되었다.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공모전에 대해 널리 알려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많은 참여를 위해 모든 참가팀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상금을 부상으로 마련하였다. 처음 계획으로는 8개 팀 이상이 참여할 경우, 학생기획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8개 팀만을 추려서 2차 심사를 진행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참여한 10개 팀이 모두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작품을 출품했기에 모든 팀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2차 심사에는 우리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물론, 출품된 UCC 영상을 200동 로비에서 방영하여 실제 시청한 농생대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UCC 등 영상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동영상 편집기술이나 영상미보다는 콘텐츠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출력작의 평점이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콘텐츠와 영상미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인 팀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UCC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학생의 우리 대학 및 우리 학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최우수팀, 뷰 캠퍼스의 이야기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팀은 영상 콘텐츠 제작 동아리 '뷰 캠퍼스(View Campus)'이다. 이 동아리는 이번 UCC 공모전 개최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다. 동아리원 6명 중 5명이 농생대 학생이었기에 'CALS UCC 공

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영상 제작을 즐기는 친구들끼리 모인 동아리이기는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며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6명의 동아리원이 각자 다양한 수업을 듣는 바쁜 재학생들이라 보니 함께 작업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뷰 캠퍼스 조용훈(11, 산업인력개발) 학생은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을 하늘에서 찍은 장면을 넣고 싶었는데, 장비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뷰 캠퍼스는 UCC 제작의 포인트를 '우리 삶에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추었다. 농업은 산소처럼 너무도 당연히 존재하기에 오히려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한다. 뷰 캠퍼스는 이번 공모전의 진정한 의미는 작품의 완성보다는 그 제작 과정에 있었다고 하며, "기획을 하면서도 동아리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두 달랐고, 그 의견을 나누는 데에서 배움이 있었고,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가지는 공모전이었다."고 말했다.



'뷰 캠퍼스' 촬영 현장



CALS UCC 공모전 최우수팀 '뷰 캠퍼스' 멤버들

농생대에 사랑과 관심을

이번 UCC 공모전을 주관한 학생행정실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은 적다고 한다. 일례로 프레젠테이션 훈련 프로그램이나 글쓰기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지만, 신청 학생이 너무나 적어서 무산된 적이 있었다. 학생행정실 산하 입학진로정보실 김태환(04, 농산업교육) 조교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우선 농생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오고 가며 무심코 지나치는 게시판에도 알찬 정보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기를 당부했다. 또 입학진로정보실은 마이스누 이메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학생은 드물어 매우 안타깝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입학진로정보실은 학생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쉬거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조용히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므로 부담없이 자주 놀러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입학진로정보실은 봄 학기부터 세미나실 대여, 유익한 도서 대여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입학진로정보실은 농대 200동 2층 농협 맞은편에 있다. 이번 UCC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들이 농생대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다음 UCC 공모전도 흥하기를 기대한다.



로그랩에 대한 양해각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총장 방문

9월 21일 라오스 수파누봉 대학의 Khamphay SISAVANH 총장 일행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다. Khamphay 총장은 학장실에서 학장 접견 후 소회의실에서 농생대와 수의대의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이후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학 정철영 학장, 수의대 김재홍 학장, 수파누봉 대학 Khamphay 총장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 학교 국제대학원이 수행하는 라오스 수파누봉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교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양교간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협의되었고, 향후 라오스 현지에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자리가 되었다.

현재 실험목장은 오골계 등 우리나라 전통 토착종은 물론, 축산과학원이 순수 재래닭을 기반으로 육용계로서의 생산성을 높인 품종(맛닭)도 복원·보급 중이다. 대학기관이 국가의 사업을 지원하는 예외적 사례인 지원기관 지정은 대학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실험목장에서 복원한 재래닭은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으로 강원, 경북, 경남의 분산보존센터로 보급되고 있다.

실험목장, 토종닭 복원지정기관 현판식 개최

우리 대학 실험목장은 10월 7일 평창캠퍼스 실험목장 행정동에서 홍성구 국립축산과학원장, 유상열 연구부학장, 이희재 연구원장, 임정목 목장장 및 국제농업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종닭 복원 지원기관 지정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축사, 현판식 및 기념촬영, 캠퍼스 투어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MOU 체결 이후 공식적인 관계로 성장해온 실험목장과 축산과학원이, 상호협력 속에 축산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부응하는 공익적 협력관계로의 도약을 선포하는



이번 대회에는 13개국의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자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론과 OECD 및 개도국의 사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첫째 날은 '생태계 서비스와 사회: 과학과 정책의 만남', 둘째 날은 '전통지식과 지역주민의 삶',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답', 셋째 날은 '원활한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토론하였고, 마지막날 지리산 국립공원 답사를 끝으로 회의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산림과학부,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산림과학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호암고수회관과 아시아연구소에서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자원관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사정에 알맞은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더불어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한 세계적 연구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이 직접 우승기를 전달하고 입상자들을 격려했다. 입상팀에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2015년도 CALS 학장배 체육대회

2015년도 CALS 학장배 체육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악사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출전 종목은 크게 축구, 농구, 테니스, 야구 4개로 구성되었고, 여러 전공 출신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축구에서는 '레알abc' 팀(응용생물화학부), 농구에서는 응용생물화학부 팀, 테니스에서는 농경제사회학부 팀, 야구에서는 'EMS' 팀(환경재료과학)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시상식은 10월 26일 각 입상팀 멤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대섭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정철영 학장이 직접 우승기를 전달하고 입상자들을 격려했다. 입상팀에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식품 성분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질 기반 나노에멀전 시스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나노 표면 기술, 암치료약의 저장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칩, 식품 또는 다양한 생명 시스템에서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π -유기물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nano-plasmonic 센서, 전기저항 항체 센서 등 나노 검출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및 해당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다양한 식품-바이오-나노 융합 기술의 국내외 첨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발표된 주요 결과들은 책자로 제작되어 향후 농식품에 접목 가능한 첨단 바이오 융합기술에 대한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2015 Agricultural Biotechnology Symposium 개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소장 장판식 교수)는 11월 13일 우리 대학 203동 101호에서 2015 Agricultural Biotechnology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Nanobiotechnology for Agri-Food Application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Sosaku Ichikawa 교수(일본 츠크바 대학), Soojin Jun 교수(미국 하와이 대학) 등 나노바이오 기술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강연하였다.



서울대 Food Biz Lab, 오픈 랩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푸드 비즈니스 랩(소장 문정훈 교수)의 “제1회 오픈 랩 세미나”가 11월 14일 서울 역삼동 문샤인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농식품 및 외식산업 관계자에게 랩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푸드 비즈니스 랩 소개를 시작으로 ‘사람의 목소리와 식품 세일즈 성과’, ‘소비자들은 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가’, ‘사회적 관계문제가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랩에서 주도한 총 11개의 연구가 소개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수립’ 등 랩이 수행한 산학협력 과제의 주요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시식을 통한 품평회 및 리서치 행사도 진행되었는데, 고구마를 건조해서 만든 ‘해피테이트’ 품평, 고급 및 일반 올리브유 관능평가가 연구주제 소개 후 진행되었고, 신제품 쌀 품평 및 버크셔와 일반 사육돈 비교시식이 저녁식사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랩 개설 5년을 맞아 열린 본 세미나에는 기업, 연구소, 학계 등 농식품 비즈니스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였고, 농식품 비즈니스, 마케팅 및 정보경영 분야에 대한 지식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슬로푸드 운동 창시자 카를로 페트리니, 특별 강연 진행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이자 국제슬로푸드협회장인 카를로 페트리니가 11월 20일 75-1동 203호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마르코 델라 세타 이탈리아 대사, 디자인하우스 이영해 대표,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김원일 사무총장 등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학 이석하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지속가능한 미래의 전문직, 농업 그리고 슬로푸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페트리니는 현재 농업의 문제를 분석한 후 새로운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농업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개선할 미래농업 청년 리더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강연 후에는 페트리니와 우리 대학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구 세대와의 교감도 이루어졌다. 페트리니를 초청하여 이 자리를 마련한 이기원 교수(농생명공학부)는 “이 강연이 우리 대학 학생들이 미래 농식품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농업의 제다움을 살리는 동시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물생명과학연구소, Plant Factory 2015 국제심포지엄 개최

Plant Factory 2015 국제심포지엄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식물생명과학연구소의 주최로 11월 26일 201동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물공장 기술과 실내수직농업이 도시농업과 미래사회에 미치는 역할과 공헌을 주제’로 이루어졌고, 손정익 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 여러 나라 출신의 석학들이 3개의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를 하였다. 이날 손정익 교수는 ‘미래사회를 위한 실용적 식물공장 기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식물공장 기술이 도시농업과 미래농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아직 국내에서는 초

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식물공장 기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신산업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5학년도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2015학년도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행사가 12월 3일 글로벌공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에 유학한 외국인 학생들은 각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로서, 향후 자국에 귀국한 뒤에도 사회 각계의 중요한 위치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교수 및 학생 6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정철영 학장의 환영사에 이어 풍물패 동아리 공연, 한국문화 소개, 외국인 학생 공연, 시상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3시간에 걸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국적을 넘어선 농생대인으로서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북돋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16기 CALS 글로벌 챌린저 임명장 수여식

제16기 CALS 글로벌 챌린저 임명장 수여식이 12월 10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농산업 개방화 시대에 직면한 농생대 재학생들이 세계의 농산업 관련 기관 및 현장을 직접 탐방토록 하여 그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심사 결과 4개 팀 9명이 최종합격하였다. 글로벌 챌린저는 각국을 탐방한 뒤, 탐방수기를 제출하고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최종합격 팀은 다음과 같다.

Pack to the Future팀(산림과학부 이민구, 식물생산과학부 강태구, 정효봉): 스페인
G Sisters팀(식물생산과학부 우현지, 장윤지): 호주

C.L.T.(Creative Leaders of Tree)팀(산림과학부 임수연, 김유정):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RoseB팀(식물생산과학부 강승희, 오현정):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50년 역사의 농생대 산악회를 탐방하다

산 - 맥을 따라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악회(이하 농생대 산악회)의 시작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리대 산악회 소속의 농생대생 및

수의대생 회원 3명이 문리대와는 별개로 함께 모여 지리산을 종주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산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 내의 유일한 단과대학 단위 산악회다.

농생대 산악회는 2002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아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중 하나인 임자체(해발 6,189m)에 다녀왔다. 또한 2012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 2명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해발 8,848m) 등반에 성공하고, 1명이 히말라야 로체(해발 8,516m) 등반에 성공했다. 특히 로체 등반에 성공한 회원은 우리 대학 10학번 동문으로, 국내 최연소 로체 등반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 - 한발짝, 한발짝씩 앞으로



농생대 산악회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과대학 산악부인 만큼, 암벽등반을 위해 모인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농생대 산

악회의 정기활동은 크게 인공암벽 등반, 자연암벽 등반, 원정 산행, 빙벽 등반의 4가지로 나뉜다. 우리 학교 75동 뒤편에는 인공암벽이 자리잡고 있는데, 산악회 학생들은 이곳에서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다. 자연암벽 등반 활동으로는 거의 매주 주말에 서울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등반한다. 또한 계절별로 서울에 있는 산은 물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으로 원정 캠핑을 가기도 한다. 지난 해 여름에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태백산을 등반했으며 내년에는 알프스 산맥의 마테호른(해발 4,478m)과 남미 최고봉인 안데스 산맥의 아콩카구아(해발 6,959m)를 등반할 예정이다.

농생대 산악회에는 재학생 회원뿐 아니라 졸업생 회원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자연암벽등반이나 원정산행은 대부분 졸업생 회원과 재학생 회원이 함께한다. 농생대 산악회에는 '시산제'와 '고회등반'이라는 특별한 산행도 있다. 산악회의 역사가 깊은 만큼, 이미 돌아가신 회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암벽 등반 후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시산제이다. 매년 가을에는 그 해 70세가 되신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는 '고회등반'을 실시한다. 또한 매년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며 송년회, 신년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졸업생 회원들과 재학생 회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함께 산행하며 산악회 활동을 즐기고 있다.

산 - 정상을 향해



2015년도 2학기부터 농생대 산악회 재학생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용(산림과학부, 14학번) 학생은 암벽등반이 좋아 처음 농생대 산악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산악'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산을 걸어 올라가는 등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산악 활동은 등산뿐만 아니라 걸어올라 갈 수 없는 암벽을 로프와 장비를 이용하여 오르는 활동도 포함한다. 특히 그는 오

르지 못했던 코스에 성공했을 때의 쾌감과 점차 높은 난이도의 코스에 도전해가는 성취감에 매력을 느껴 암벽등반을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지용 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84학번 선배님에게도 '형'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다가가갈 수 있는 동아리는 많지 않다"며 산악회의 긴밀한 선배배간 교류에 대해 언급했다. 장기 원정이나 해외 원정은 재학생들만으로는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졸업한 선배님들이 함께 원정에 참가하여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재정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주말 암벽 등반의 경우 졸업생 대부분이 참가할 정도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씨는 재학생 지부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산악회 재학생 지부를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가 즐거운 산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거운 산행을 하면서도, 지금껏 자율적으로 하던 개인 운동을 체계를 가지고 함께 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농생대 산악회의 목표에 대해서는 히말라야 최고봉 정복과 세계적인 암벽등반의 메카로 알려진 미국의 요세미티 암벽 정복을 꼽았다.

농생대 산악회는 매년 3월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신입회원으로 암벽등반 15회, 장기원정 2회를 함께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자연과 인사하세요, ‘헬로네이처’ CEO 좌종호 동문



좌종호 동문(농경제 · 05)

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가 또한 효율적인 판매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농업과 IT의 융합을 통해 농촌과 각지의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헬로네이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헬로네이처 이야기

좌종호 동문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온라인 식품 판매 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1년 정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산지를 돌아다니고 농가를 찾아갔다. 그는 처음부터 훌륭한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기보다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사업 초기에 그는 우선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농촌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이 앞섰다고 한다. 농민들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서울로 돌아온 적도 있었고, 그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일을 반복할수록 경험이 쌓였고, 이를 통해 점차 노하우를 찾아내 계획을 성사시키고 사업 규모도 키우며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갔다. 지금은 헬로네이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농민도 많다. 헬로네이처는 운도 좋은 편이었다. 초기 자본금이 바닥나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가 찾아왔으나 그때 마침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당장의 위기를 넘긴 후 곧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정부지원을 조금이라도 늦게 받았더라면 지금의 헬로네이처는 없었을 것이라 회상하며, 좌종호 동문은 적절한 시기에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던 행운도 성공 요소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재 주 고객층은 젊은 엄마들이고 재구매율도 아주 높다.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간간한 엄마들도 헬로네이처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로네이처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주문이 들어오면 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갓 수확한 작물을 소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콜드 체인 시스템을 거치고 있다. 좌종호 동문은 이러한 식품 유통에 있어 소비자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시적인 강추위로 인해 배송 중 냉기가 스티로폼 포장을 뚫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강추위가 물러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려 애쓰는 좌종호 부대표의 모습에서 그가 회사를 어떤 식으로 일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농업, 가공되지 않은 원석

1차 산업의 이미지가 강한 농업과 첨단사업인 IT를 접목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좌종호 동문에게 농업의 산업적 전망을 물었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보면 농업의 향후 전망이 밝다고 하였다. ‘먹방’과 요리 프로그램의 유행에서 볼 수 있듯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고, 먹거리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키운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좌종호 동문은 농업을 브랜딩과 포장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원석과 같은 분야라고 비유했다. ‘헬로네이처’는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다. 정부가 공산물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한국의 농산물 품질이 우수하기에, 해외 진출을 통해 더 넓은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좌종호 동문은 먼저 국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 친환경 프리미엄 식품을 사고 싶을 때 ‘헬로네이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국내 인지도를 쌓은 이후에 조금씩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단 시작하라

좌종호 동문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좋은 취직기회를 포기했다. 실제로 그의 부모님은 위험성이 높은 창업의 길을 택한 그를 만류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좌종호 동문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해본 적이 없고 현재는 부모님도 만족하신다고 전했다. 사업이 침체되었던 시기에는 급여 없이 어렵게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러한 기간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좌종호 동문은 성장, 성취,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창업 분야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동업을 할 때는 의견 충돌을 줄이기 위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자금력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자금을 확보해야만, 기획을 추진하고 이익을 내 다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내내 좌종호 동문도 여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CPA, 고시 등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자신이 진정 가야 할 길을 찾고자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관련 직종에서 현직으로 일하는 다양한 선배들을 직접 만나고 생생한 근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는 요즘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네트워킹’을 이용해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발품을 팔아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권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였다. “고민을 하면 고민으로 끝나버린다, 일단 시작하라.”

▶ 농생대 학생기자단 3기 오유진, 4기 나혜지, 5기 이상욱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다섯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김학진 교수!

김학진 교수는 1993년 우리 대학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1999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농공연구사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06년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생물환경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8년 부산대학교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교수직을 거쳐 2010년 우리 대학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김학진 교수의 연구분야인 '바이오시스템 제어 및 자동화'는 농기계 및 농업 관련 분야에 센서 및 제어기와 같은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과 바이오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김학진 교수는 이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복합요소 측정 및 최적제어를 통한 정밀농업 구현과 ICT 기술을 통한 농업 혁신을 목표로 연구 중이다.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과제를 통하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의 생육 모니터링 연구, 식물공장 재배 영양분 센싱 및 자동관리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하여 무인 농작업을 위한 경로계획 및 추종 알고리즘, 농작업 정보 맵핑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김학진 교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학진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공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성장기를 거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공학을 농업에 관련시켜 접목하는 연구에 점점 관심이 생기게 되어 현재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김학진 교수는 “먼저 동아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떴다. 그는 교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 대학교의 연합 동아리인 시설활동연합회 ‘한솔’에 가입했다. 교아원 등의 시설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학업봉사, 즉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하면서 보람차고 의미있는 대학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김학진 교수는 “학생들이 높은 목표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거시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너무 구체적이고 근시안적인 목표나 막무가내로 거창한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적인 목표만 잡는다면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만 생각하기보다는 추가로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이나 사회적 책임, 리더의 역할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말을 마쳤다.

도서 추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유용하고 알차게 보내는 법을 알려준다. 김학진 교수는 서점의 책들을 둘러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저자 : 사이토 다카시)

보던 중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이 책을 골라 읽게 되었으며,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조언들을 주고 거기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혼자’라는 단어는 고독이 아니라 홀로 서기, 즉 각자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서로 간의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 책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책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현재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을 통하여 지나치게 대량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로 인해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기를 통해 접한 정보에 스스로를 맞춰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 일기 쓰기 등을 언급하고 또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서 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독선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며 자칫 혼동할 수도 있는 부분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익숙한 것과 단절하는 것이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도 고정관념에 박혀 지금 당장의 메가트렌드만 쫓는 대신에, 10년 이후를 전망하여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변화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 예측하고, 한 분야를 이끌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조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김학진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조정 · 지역시스템공학부 손영환 교수. 손영환 교수의 추천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2015. 11. 05. 이데일리〉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교수법 안내서’ 출간

“교육학 지식 없이도 자신만의 교수법 찾도록 집필”

조교 활용법 등 대학강단서 적용 가능한 내용 담아



교육부 차관 출신이자 교수법 전문가인 나승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53·사진)가 효과적인 교수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펴냈다. 교수법이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습활동을 돕는 방법을 뜻한다.

나 교수가 펴낸 안내서는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개정판, 서울대출판문화원)’이다. 앞서 2004년 교수법 가이드 초판을 펴내 동료 교수들로부터 “실제 강의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 교수는 이에 힘입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정판을 펴내게 됐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라면 교육방법에 통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교수법을 체득하기 어렵다는 게 나 교수의 설명이다. 교수가 되기까지 천착해 온 전공분야에는 해박할지 몰라도 학습의욕을 높이거나 교육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은 교수법을 통해 별도로 익혀야 한다는 얘기다. 이 책은 대학교수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경력이 많은 교수들에게는 자신의 교수법을 진단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강사나 신입 교수들

에게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안내한다. 교육학 학습경험이 없는 교수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가급적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첫 장(대학과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담았다. 나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 대해 “초판을 근간으로 하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지도법 ▲SNS를 활용하는 기술 ▲능력중심수업방법 ▲교육조교의 활용법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장(성공적인 수업준비와 실제)부터는 실제 강단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강의계획서·학습지도안 작성 등 수업 준비과정부터 첫 수업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인지를 안내한다. 3장(핵심적인 수업기술)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법이 등장한다. 학생과의 신뢰감을 쌓는 기술부터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교육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제시돼 있다. 특히 지각·결석을 줄이는 기술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을 다루는 세심한 기술까지 소개돼 있다. 나 교수는 “지금까지 효과적인 교수법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서적이 많이 출간됐지만 교육학 지식이 없는 교수들에게는 너무 이론적이고 난해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 책은 누구나 잠시 살펴봐도 쉽게 자신의 교수법을 살펴보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5. 11. 23. 원예산업신문〉

시설장미 점박이응애 약제 저항성 강해...작물보호제 저항수준 신속측정기법 개발



서울대학교 이시혁 교수(농생명공학부)와 권덕호 교수(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및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택준 박사 연구팀은 작물보호제(살비제) 저항성 점박이응애의 약제 저항성 수준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설장미 재배지에서 점박이응애는 짧은 세대 주기와 높은 증식력으로 약제에 대한 저항성 발달이 빠르다. 약 40여종 이상의 작물보호제가 방제 약제로 등록이 되었으며 어느 계열의 살비제가 유효한지 사전 확인 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잔류점박이응애 정량적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개발했다. 잔류점박이응애의 경우, 살아있는 점박이응애의 살비제 저항성 수준을 8시간 안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12개 살비제를 대상으로 현장적용 가능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정량적 염기서열 분석기법은 5종의 살비제 저항성과 연관 있는 12개 돌연

변이의 형질 빈도를 개체군 차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대량고속진단(High-throughput screening)이 가능하다. 장미 재배단지에서 채집한 지역 계통을 대상으로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국내 장미 재배단지의 약제 저항성 수준은 실험에 사용한 대부분의 약제들에 높은 수준의 복합 저항성을 보여 새로운 방제기법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6일 인터넷 발간저널인 PLoS ONE에 게재됐다. 이시혁 교수 연구팀은 “살비제 저항성 점박이응애 개체군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체 기법으로서 진흥청 바이오그린 GM작물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RNA 간섭(RNA interference) 기작을 기반으로 한 생명공학적 방제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며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저항성 진단기법과 분자마커 기반 침전 진단기법은 농민들이 해당 농가의 상황에 적합한 약제 선택에 도움을 줌 방제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약제의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2015. 11. 26. 동아일보〉

아시아·아프리카 벼 기원 밝힌 유전체 해독기술 개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더불어 자원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생물자원의 주권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종자주권 확보 등에 도움을 줄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대학교는 양태진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식물의 진화기작을 규명할 수 있는 염색체유전체와 식물의 종다양성 연구에 활용되는 핵리보솜 유전자들 동시에 효율적

으로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차세대유전체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 NGS)로 생산된 소규모 염기서열정보를 효율적으로 가공, 염색체유전체 정보를 완성하는 분석방법이다. 연구팀은 소규모 NGS 데이터를 이용한 조립방법인 이 기술의 이름을 ‘de novo assembly of low coverage whole genome sequence(dnaLCW)’로 명명했다. 이 기술이 기존 방법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을 제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태면 식물 하나의 유전체 정보를 완성하기 위해 염색체 DNA를 따로 추출해 일일이 연결해 6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방법에 비해 이 기술을 쓰면 10개 이상을 한 달 만에 완성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벼와 야생벼 30종의

염색체유전체와 핵리보솜 유전자 서열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재배종 벼의 기원을 밝혔다.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지난 10월28일 실렸다. 또 인삼품종 11개의 염색체 서열을 완성하고 인삼품종 특이 마커를 개발, 우리나라 우수 인삼품종의 분자육종을 가능하게 해 국내 우수 인삼종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지난 6월 게재됐다. 이 밖에도 연구팀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지원을 받아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등 100여종 이상의 식물종에 대한 염색체유전체 정보를 세계 최초로 완성, 최근 5개월 사이에 약 20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dnaLCW기술은 우리나라의 유전체분석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자원식물과 종자주권 등을 확보해 응용연구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생물자원 유전자분석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상용화 서비스 돼 국내 다양한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뉴스1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금출연 (2015. 09. 01 ~ 2015. 12. 31.)		누적금액 : 80,174,400원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익명	20,700,000	고추외육종	7,000,000
익명	16,420,000	이동근	4,780,000
최준원	10,000,000	(주)누보	4,000,000
		이병호	4,000,000
		(주)비씨엔에프	3,000,000
		100만원 이상	
		(주)엘씨에스바이오텍	3,000,000
		(주)블루비에스	3,000,000
		오평환장학금	2,274,400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4기	2,000,000

기금출연(2000. 01. 01 ~ 2015. 08. 31)			누적금액 : 6,287,783,405원	
MBC문화방송	서울신문사	관철 (59)축산학	배동걸	㈜누보
(재)목운문화재단	윤희진 (62)축산학	김현중 (83)임산공학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유상렬
류덕희 (㈜경동제약 대표이사	실험누리과학관 (82)대학원	류순호 (55)농화학	㈜서울신문사	㈜프로챌코리아 농생명공학부
환경지도자초과과정	㈜고추와육종	박시우 (66)농생물학	김경옥 (68)농공학	㈜누보
한국전파기지국㈜	오평한장학금 적립금	원원희 김유용교수부인	김기선 (74)원예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정운환 (56)임학	(재)유연장학회	윤익건설	윤여창 (74)임학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
익명 농경제	70학번 동기회	이병일 (57)원예학	정구민 (84)축산학	고종열 (87)축산학(박사)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광주MBC	익명 (71)	㈜블루인바이오먼트엔텍	정중훈 (77)농공학
농생대 동창회	㈜현우그린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숲에서	㈜장수로
창업지원센터	차상석 연세대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아데나	KBS한국방송
RNL 생명과학㈜	홍충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이필우 (53)임학	㈜오리엔탈드림	㈜누보
농협중앙회	화인엔터프라	이현수 (60)농화학	㈜프로챌코리아	이용환 (79)농생물학
최운재 (73)축산학	㈜이피텍	장휴동 (59)농경제학	㈜고추와육종	유상렬 (78)식품공학
(재)목운재단 축산학	현정오 (66)농생물학	정희석 (60)임학	㈜밀투밸런스	김국형 (83)농생물학
농학과 동기회	이든구 (65)임학	㈜내추로바이오텍	한재용 (80)축산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녹색지도자초과과정	이종한 (2009)동물생명공학	㈜싸이퍼인텔리전스	패션푸드㈜	에스위터㈜
장진성 (78)임학	익명 수의학	㈜한성T&I	고희중 (76)농학	㈜하이스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서병륜 (69)농공학	㈜SK텔레콤	㈜프로챌코리아	㈜녹색식물연구소 (78)원예
이병목 (64)농생물학	㈜에이티랩	(유)PPG코리아	㈜생명이나루	㈜내추로바이오텍
이홍 (70)농화학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누보	김명중 (70)임산공학	㈜넥스캠
창업지원센터	박효근 (59)농학	㈜베스트테크코리아	김상돈 (44)축산학	㈜숲에서
박은우 (73)농생물학	㈜에이피디	채영암 (60)농학	동 문	㈜아데나
우보영 (57)임학	유원예코사이언스㈜	투를러스코스팜㈜	신희순 (69)잠사학	㈜하이스
제10기 녹색지도자초과과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피타코이드㈜	유원예코사이언스	㈜엘씨에스
류관희 (63)농공학	김유용, 윤원희	71학번 동기회	이무하 (67)축산학	53학번 동기회
부경생 (60)농생물학	농생대 수목원	김영배 (85)축산학	이정식 (69)원예학	60학번 동기회
안성규 (76)임학	안원영 (55)임학	박종국 (57)농화학	제11기 녹색지도자초과과정	강석근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홍상욱 (83)원예학	㈜투를러스코스팜	강신백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
㈜에스씨에프	한성T&I	서울대 농생대 (2013)학부모회	프로챌코리아	김성일 (76)임학
한국마사회	윤용인 (57)농가정학	배동걸	CALSP	우리농장
이종윤(고 이진옥 父) 김덕연	염동해 (74)조경학	㈜녹색식물연구소	㈜에이티랩	임승빈 조경학 교수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비비씨엔에프	한국마사회	정진화
유한킴벌리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고추와육종	프로챌코리아	㈜이관희 프로덕션

기금출연(2000. 01. 01 ~ 2015. 08. 31)

㈜블루비에스	서학수 (65)농학	이내수 (58)농경제학	㈜센소메트릭스	박창호 (58)임학
㈜비르엔마이크로	이삼휘 (66)농화학	이동근 (82)조경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성호경 학부모
㈜생명과학기술	이상기 (79)농화학	이두이 (66)농학	㈜산농	신한풍(59)농학
㈜신타	김영호 (73)농생물학	이득용 (52)농경제학	재일동창생	신현호 (79)원예학
㈜에코엘리다라이트	이시혁 (80)농생물학	이명훈 (69)농경제학	농생대 기획실	엄기덕 (46)농화학
㈜이지코스	전창후 (83)원예학	이미순 (56)농학	69학번 여성동기회	연은실
㈜지이옴	김정한 (75)농화학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김정원 서울대직원	온경용 (79)원예학
고려시스템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이승환 (80)농생물학	문성훈 (86)식품공학	윤계성 (53)임학
㈜베스트텍코리아	김영도 (68)축산학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바이오사이드테크	이건호 (67)농경제학
㈜서울신문사	이기훈 (91)천연섬유	이온규 (77)농학	이재갑	이광희 (75)농학
㈜비비씨엔에프	이완주 (63)잠사학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이래웰	이병근 (67)농경제학
㈜블루비에스	㈜에스씨아이	이인모 (65)농경제학	㈜해법테크	이상훈 (88)조경학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3기	최홍림 (71)농공학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한국방송공사	이춘만 (73)임학
㈜네이처그로	김성수 (63)농업교육	이정훈 父 (2000)식물생산과학부	이성규	이희성 (57)농생물학
서울신문사	일본동문회	이준호 (74)농생물학	윤해정 (90)임산공학	장창순 (53)농경제학
한성T&I	㈜한국에그로바이오	이중용 (77)농공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조도현 서울대직원
이석하 (78)농학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이철우 (61)농경제학	이상우 (89)임학	조민성 父 (97)농경제학사회학부
백남천 (81)농학	권정혁 (60)농학	이현강 (69)임학	임용재 (67)농경제학	조재영 (39)농학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김관수 (82)농경제학	이희재 (78)원예학	장태평	채수근 (54)잠사학
박필선 (90)산림자원학	김광호 (68)식품공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진정우 학부모	최연홍 (56)잠사학
정주상 (77)임학	김규옥 학부모	장학근 학부모	최인규 (80)임산공학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공학부
원광엠에프디(주) (86)농화학	김동암 (52)축산학	정민섭 (59)임학	강병철 (86)원예학	홍인식 (79)원예학
김유용 (83)축산학	김동윤 (48)농경제학	정진구 (65)농공학	안동만 조경학 교수	홍종일 (80)축산학
오평환장학금 기본 적립	김민규 (82)농화학	조성인 (77)농공학	하종규 (75)축산학	문태화 (71)식품공학
㈜케이티엔에프	김병동 (62)농학	㈜에스이오	양태진 (85)원예학	김근숙 농화학
강예완 학부모	김봉영 에버랜드사장	㈜에프엔피	권숙향 학부모	김석구 (55)임학
동화특수산업(주)	김성배 (85)농생물학	㈜FC	박수철 (82)산림자원	김태수 (66)임학
심용섭 (70)농업교육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서문원 (74)농학	박낙희 (83)농업교육
이병창	김종무 (59)농학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신재익 (60)농화학	박정현 (64)농업교육
이우신 (75)임학	김진모 (81)농업교육	최진용 (84)농공학	우무일 (64)임학	우석상 (83)임학
이장희	김진의 (59)축산학	최희근(최윤희 학부모) (2010)응용생명	이미경 (74)농화학	유상철 (64)축산학
이태호 (74)농경제학	김호택 (58)농경제학	한준호 (64)임학	이상영 (65)잠사학	이재진 (65)농학
이형주 (66)농화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이수정 (65)농가정학	김영권 농학
임경순 (54)축산학	노희명 (76)농화학	호영하이텍	정일영 (62)축산학	김영상 (58)농학
조종수 (66)잠사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우상규	정현석 (63)농화학	백중현 (79)임산기공학
㈜바이오포아	농화학 동문회	㈜두타연	㈜지이메프바이오	장우상 (63)잠사학
㈜씨에스텍	도운희 (61)농화학	김경욱	한성을 (72)농업교육	김영성 (59)농경제학
㈜여러분의 천연초	문지애 (77)식품공학	김학진	현의송 (61)잠사학	무영 (55)농공학
최상호 (78)식품공학	박기주 (69)농업교육	㈜푸름바이오 박준현 원예학	이승구 (66)농화학	이동찬 (82)농공학
㈜한성T&I	반성환 (50)농경제학	㈜제노레비코리아 농업생명공학부	김상근 농업교육	강미정 농가정학
제노레비코리아	신젠타코리아(주)	㈜추비로	구자환 (81)농학	서민영 서울대직원
㈜한성T&I	셀테크	손정익 (75)농공학	김동태 (62)농경제학	
㈜엘씨에스바이오텍	안동환 (86)농경제학	브이에프티	김무열 (64)농공학	
㈜바이오센 농업생명공학부	양호석 (57)농화학	강창희 (66)농경제학	김영복 (72)농공학	
황인규 (76)농생물학	오기봉 (78)농화학	㈜유원테크	김인식 (64)농학	
직업과정CEO 과정	원후식 (56)농생물학	가나바이오텍(주)	박원규 (60)농공학	
박관화 (62)농화학	이경국 (78)	고화중, 김성남, 안희성, 노희명 기부보험 만가액	박창석 (61)농경제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동문동정]

- ▶ **이종수** 동문(식품공학 82)이 11월 30일 삼양제넥스 상무로 승진하였다.
- ▶ **이병준** 동문(식품공학 83)이 11월 30일 삼양사 상무로 승진하였다.
- ▶ **서범수** 동문(농경제 82)이 12월 22일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으로 내정되었다.
- ▶ **고기연** 동문(산림자원 87)이 12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승진하였다.
- ▶ **조용섭** 동문(원예학 77)이 1월 1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 ▶ **김의도** 동문(농경제 84)이 1월 4일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로 임명되었다.
- ▶ **김성일** 동문(농업교육 79)이 1월 4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에 취임하였다.

[교수동정]

▶ **안용준 교수**(농생명공학부), **권형욱 교수**(농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모기의 흡혈행동 중,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냄새를 감지해서 신속히 흡혈을 하는 후각행동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검증하여 Nature 자매지이며 권위있는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8월 26일 온라인 게재)를 통해 발표하였다.



안용준 교수 권형욱 교수

▶ **김도만 교수**(국제농업기술대학원)팀은 미국 로잘린드 프랭클린 시카고 의대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비만과 당뇨에 관련된 세포내 탄수화물 수송체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천연물의 생물전환기술을 통하여 개발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 저명 학술지 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8월 26일 온라인 게재)에 발표되었다.



김도만 교수

▶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는 10월 10일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를 출간하였다. 또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직업교육훈련학회(AASVET)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국경비전과 교육정책과제: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하였다.



나승일 교수

▶ **이경준 명예교수**(산림과학부)는 10월 22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임학회 추계총회에서 제3회 현진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경준 명예교수는 수목생리학과 수목진단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수행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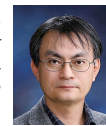
이경준 명예교수

▶ **손정의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10월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15 한국원예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임시총회에서 제20회 학술공적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원예학회는 해마다 원예학 및 원예학의 발전에 큰 공적을 쌓은 자에게 학술공적상을 수여하고 있다.



손정의 교수

▶ **김성균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연변대학교 미술관에서 ‘김성균 교수 설계 및 사진 개인 작품전’을 가졌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덕수궁 보행자길’ 등 김성균 교수가 설계한 작품들의 사진을 전시했다. 김성균 교수는 ‘해외석학 초청강연’에서 연길시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설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성균 교수

▶ **백명기 교수**(농생명공학부)가 12월 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카길 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백명기 교수

▶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가 12월 8일 환경·생태분야 특화연구소인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Helmholtz 연구소에서 “Metabolic Engineering of Saccharomyces cerevisiae for production of biobased chemicals”의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서진호 교수

▶ **이우신 교수**(산림과학부)가 12월 10일 철원군청에서 개최된 제11회 DMZ평화상 시상식 및 국제평화 심포지엄에서 학술연구부문 상을 수상하였다. DMZ평화상은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이우신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학회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실험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학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학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연구센터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유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유통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동창회 소식]

▶ 제10대 동창회 차기회장후보선출위원회



10월 20일 제10대 동창회장후보 선출위원회가 참배나무골에서 열렸다. 김동태(농경제 62)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

현수 현 동창회장(농화학 60), 이은종(농생물 59) 위원, 이돈구(임학 65) 위원, 구자옥(농학 60) 위원, 부경생(농생물 60) 위원, 조종수(잡사 66) 위원, 정성봉(농교육 63) 위원, 하종규(축산 석77) 위원, 류관희(농공학 64)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하였다.

▶ 동창회 송년회 및 제2차 상임부회장 회의



농생대 동창회는 12월 29일 참배나무골에서 동창회 송년회 및 제2차 상임부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학 정철영 학장 및 이현수 동창회장, 류관희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2015년도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10대 동창회장으로 류관희 현 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5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덕담을 나누며, 2016년 새해인사회 개최를 안내하고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서로 독려해주시기를 부탁하며 모임을 마쳤다.

★ 소식을 통해 알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jhw1234@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